

자료제공 : 2023. 8. 23.(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농수산식품공사 환경조성본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2133-4450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2133-4463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2133-4700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2133-4730
환경조성본부장	권기태	3435-0580
식품안전팀장	박경선	3435-0310

### 서울시, 모든 수산물 대상 매일 표본조사.. 검사결과 실시간 공개

- 수산물 안전 확보 4대 방안 ①매일 검사 ②전체 산지·어종별 표본조사 ③실시간 결과 공개
- ④시민이 신청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찾아가는 방사능검사소’ 수시검사 지원
- 일본산 수산물 취급·판매하는 3천 곳 특별 점검 및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T/F도 운영
- 시 “철저한 검사와 모니터링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하고, 시민 불안 해소해 나갈 것”

서울시가 앞으로는 산지·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①매일 검사 ②전체 산지·어종별 표본조사 ③실시간 결과 공개 ④‘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23일(수) 밝혔다.

<산지·어종 불문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일 표본 검사’ 실시, 실시간 검사 결과 공개>

- 먼저 시는 주요 도매시장(가락시장, 노량진시장, 수협강서공판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휴무일인 일요일 제외)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①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당초 수입산에 한해 진행하던 검사대상도 국내산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 검사기로 했다.
  
- 또한 산지·어종을 불문하고 ②서울 시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③‘방사능 및 안전성 검사결과’는 식품안전정보(fsi.seoul.go.kr) 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garak.co.kr)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 시는 시민이 검사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 방사능 안전신호등’ 표시를 활용해 안전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④방사능으로부터 식품이 안전한지 시민 누구나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를 확대, 모든 신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
  
- 아울러 시는 수입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이를 위해 서울시(시민건강국)를 주축으로 식품 안전 및 방사능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T/F(특별반)’를 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불안 최소화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T/F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신속 대응체계 유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수집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민 불안 해소 등을 전개하게 된다.
  
- 앞으로 서울시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량을 대폭 늘리고 검사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한편 예비비 등 예산을 조기 편성하여 고성능 방사능 검사장비(감마 핵종분석장치) 추가 확보, 인력 확충 등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 천일염 가격급등 사태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산물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 수시 검사 지원… 시 “시민 먹거리 안전 철저히 확보”>

- 한편 가락시장 내 소비자나 상인 요청 시 현장 검사를 통해 1시간 내 결과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도 검사원을 늘려 수시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24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안전지킴이’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참여 중이다.

- ‘농수산물유통안전지킴이’는 검사용 시료를 직접 채취,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방사능·미생물 검사를 수행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서 검사에 참여해 먹거리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안전지킴이 방사능 검사〉

- (일시·장소) '23년 5월 10일, 6월 14일, 9월 13일, 10월 11일/ 가락물 및 수산도매시장
- (조사품목) 일본산 활가리비, 러시아산 킹크랩, 노르웨이 연어, 중국산 백합, 국내산 전복 등(26개 품목)
- (검사결과) 전상품 3Bq 이하 측정(식약처 방사능 부적합 기준 100Bq/kg)

□ 서울시가 7월 말까지 3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 지난해 3개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수산물은 총 14만3,815톤으로, 이들 시장에서 서울시민 수산물 소비량(66만1천톤)\*의 21.7%가 취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일본산은 1.6%(2,312톤)를 차지했으며, 주로 돔·명태·방어·가리비·멍게 등이 유통됐다.

\*'20년 해양수산부 '1인 수산물 연간 소비량(68.4kg)' 기준

(단위 : 톤)

구 분	계	국내산(75%)	수입산(25%)	일본산 비율	
계	143,815	107,775	36,040	2,312	1.6%
가 락 시 장	81,206	63,187	18,019	430	0.52%
노 량 진 시 장	52,426	38,470	13,956	1,762	3.36%
강서수협공판장	10,183	6,118	4,065	120	1.17%

〈3개 주요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현황〉

□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포함 잔류농약·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